

유흥업소 4천개 폐업

실명제뒤 종업원 절반 감소

93.9.15

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유흥업소의 약 4분의1 가량이 문을 닫고 이들 업소의 종업원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11일 유흥업중앙회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전에 1만7천2백63개였던 전국의 허가 유흥업소수가 실명제 실시 한달 만인 10일 현재 1만3천2백개로 24%나 줄어들었다.

또 유흥업소 종사자수도 41만4천2백명에서 25만명으로 40%나 감소했다. 특히 접대부 등 여성종업원수가 크게 줄어 감소종업원의 7할을 여성이 차지했다.

이런 유흥업소 및 종업원의 감소 현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정한파에 뒤이어 실명제 실시로 유흥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고 이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유흥업중앙회의 관계자는 "실명제 이후 나이트클럽, 룸살롱, 요정, 카바레 등 허가 유흥업소의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,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들은 오히려 업체수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"고 말했다.